

(...8페이지에 이어) 상 자동적으로 정규직이 되지 만, 그 이후 입사자는 다른 일 반 응시자와 똑같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했기 때문에 그만큼 취준생들의 취업 기회가 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에 대해 일자리 수석은 "2017년 5월 이후엔 정규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모르고 들어온 사람은 자동 정규직이고 알고 들어온 사람은 시험을

보라는 것은 대체 무슨 논리인가. 그러자 문 대통령 방문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 사이에 선 '초등생 수준 시험을 보게 되니 걱정 말라'는 말이 돈다고 한다. 인터넷에선 "2017년 5월은 신(神)이 강림한 날" "성 은을 입은 사람만 정규직 되느냐"는 냉소가 쏟아졌다.

지금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 사태 최대 피해자 중 하나다. 인천공항 이용객은 작년 대비 97%, 면세점 매출은 99% 격감해 '파리 날리는 공

항이 됐고, 올해 32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항공·여행업 불황은 앞으로 수년 더 지속된다고 한다. 이 와중에 인천공항공사는 정부 압박에 평균 연봉 3850만원의 정규직을 2100명 더 늘리는 황당한 결정을 했다. 공항 이용객이 감소한 만큼 보안 검색 수요도 줄어드는데 인천공항공사는 거꾸로 경직적 인건비를 더 늘리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경영에 구멍이 나면 또 국민 세금으로 메울 것이다.

70년 포로 앞 우리는 죄인



2010년 여든넷인 국군 포로가 60년 만에 북한을 탈출해 우리 국민에게 편지를 썼다. "7·4 공동성명(1972년)이 나오고 적십자 회담을 할 때마다 행여나 기대를 걸었지만 모두 속았다. (북에서 60년은)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애끓는 눈물의 세월이었다"고 했다. 자력으로 탈출한 국군 포로는 10년 전 그가 마지막이다. 스물세 포로가 됐더라도 지금 아흔이다. 귀환한 국군 포로 80명 중에는 23명이 생존해 있다.

깊게 팬 얼굴 사진도 동봉했다. 이북은 여러 사정으로 다시 북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국군 포로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1953년 유엔군사령부가 추정한 국군 실종자는 8만 2000여명이다. 그런데 북이 송환한 국군 포로는 8343명 뿐이다. 북에 억류된 수만 명의 포로들은 노예처럼 살았다. 불발탄 해제하다 죽고, 광산 유독가스에 속 마쳐 죽었다. 손가락이 잘렸는데도 곡괭이를 들어야 했다. 국군 포로를 돕는 인권단체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이제 230명 정도만 생존하신 걸로 추정한다"고 했다. 정말 시간이 없다.

▶국군 포로 유영복씨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북에서 TV로 봤다. 두 정상이 포

옹하는 걸 보고 이제는 국군 포로들도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 6·15 선언엔 국군 포로의 '기'자도 없었다. 꿈이 깨지자 죽을 각오로 탈북했다. 2004년 국군 포로 한 만택씨가 중국에서 강제 복송됐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씨 가족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죽은 자가 살아오는 기적'을 부탁하는 편지를 썼다.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은 단 한 명의 병사도 적지에 남겨 놓지 않는다. 유해라도 데리고 온다. 그런데 한국은 1998년 사지(死地)를 벗어난 국군 포로가 도와달라는 전화를 했더니 현지 대사관 직원이 야말치게 끌어버리는 나라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세 번이나 만났지만 '국군 포로' 얘기를 꺼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국가를 지키려다 적지에 남겨진 국군 포로들은 70년째 남쪽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정부가 구해줄 것'이란 희망을 품고 있을지 모른다. 이들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는 그들 앞에 모두 죄인이다.

'문재인 풍자 대자보' 붙였다가

有罪 받은 20대 청년

외양은 50만원짜리 벌금형이지만
경·검찰, 법원이 표현의 자유와 권력자 비판에 재갈을 물린 사건

문재인 정권 '풍자(諷刺) 대자보'를 붙였다가 유죄 선고 받은 청년은 스물다섯 살이었다. 내 아들보다도 어렸다. 부모님이 식당을 한다고 했다. 그는 구기 종목 선수로 지방국립대 체육학과를 다녔다. 정치·사회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했다.

그가 처음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졸업 후 의경으로 복무할 때였다. 조국 사태로 연일 찬반 집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나는 아는 지식이 얼마 안되지만 무엇이 옳은지는 안다. 정의 '공정'을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들이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 게 너무 이상했다. 위선과 내로남불은 너무 싫었다. 현 정권이 청년들 환심을 사려고 돈 주겠다는 것은 청년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국가 부채를 미래 세대에 미루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다."

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경제왕 문재인, 마차가 말을 끄는 기적의 소득 주도 성장' '기부왕 문재인, 나라까지 기부하는 통 큰 지도자'라는 대자보를 대학가에 붙였던 전대협 단체를 알게 됐다. 풍자와 패러디로 재미있게 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 가입했다고 한다.

작년 8월 제대 뒤 그는 직장을 찾는 '취준생'이 됐다. 그 기간에 처음으로 전대협 대자보를 직접 붙여보았다. 넉 달 뒤 홍콩 민주화 시위로 시끄럽자,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은 시진핑 주석으로부터서신을 하달받아 전국 430개 대학에 부착하라는 지령을 받았

다'로 시작하는 대자보를 붙일 기회가 또 왔다.

대자보에는 '이제 나의 총견 문재인이 한미 일 동맹 파괴와 총선에서 승리한 후 미군을 철수시켜 완벽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칠 것'이라며 홍콩 다음으로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갈 한국 상황을 풍자해놓았다. 전국 400여 대학에 동시다발로 붙이기로 돼 있었다.

그는 새벽 3시쯤 단국대 천안캠퍼스를 돌며 자신에게 할당된 대자보 8장을 붙였다. 해당 지역 경찰은 그전부터 대자보를 붙이는 '범인' 색출에 열의를 보였다. 상부의 지시 때문이거나 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일 수 있다. 지난번에는 대자보에서 지문(指紋) 채취까지 했다. 그게 소득이 없자, 대학 측에 '붙은 게시물이 붙으면 연락해달라'고 부탁해놓았다.

그러던 중 문제의 '시진핑 지령(指令)' 대자보가 붙은 날, 대학 측은 업무 협력 차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를 "대학 당국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주장했다. CCTV를 뒤져 청년의 차량 번호를 파악했다. 드디어 '중대 범인'을 잡은 것이다.

제작된 말 대학가에 문 대통령 풍자 대자보가 처음 등장했을 때 현 정권은 당황하고 격분했다. 국가원수모독죄나 명예훼손죄를 언급했다. 서울 광화문에서 김정은을 찬양하고 태극기를 불태우는 좌파 단체를 못 본 척했던 수사당국이 대자보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적용을 검토했다. 대자보가 김정은이 마치 지령을 내리는 식으로 문재인 정권을 신랄하게 비꼬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칭 촛불 정권이 국보법이나 국가원수모독죄를 적용할 수는 없었다. 마침내 고안해낸 혐의가 '건조물 침입죄'였다. 대학 캠퍼스에 무단 침입한 걸로 엮었다. 하지만 일

반인이 수시로 드나드는 대학에 들어간 걸 '침입'으로 추궁하기에는 공색했다. 경찰 조사 기록을 보면 건조물 침입 혐의와 무관한 대자보 내용과 어떻게 전달받아 왜 붙였는지를 주로 신문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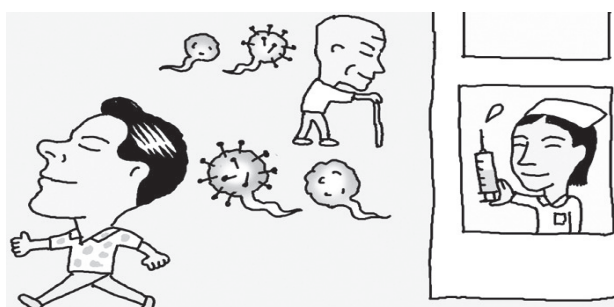
하지만 무료 변호를 맡은 젊은 변호사가 "2020년 대한민국의 자유가 있는 일"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정에서 변호인은 "현 정권 실세들 다수가 과거 전대협 활동을 하면서 대자보를 붙였다. 그때 자신들이 대자보를 붙인 것은 표현의 자유, 민주화 운동이고 현재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는 것은 건조물 침입죄인가?"라고 물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대학 관계자도 "대자보로 피해본 게 없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재판까지 갈 문제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판사는 벌금 100만원을 절반으로 깎아준 판결을 내렸다. 청년의 사정을 봐줬다고 자위할지 모른다. 그 자신이 민주주의 퇴행의 협조자가 됐다는 사실은 못 깨닫고 있을 것이다.

그 청년에게는 범죄 전과가 남고, 취업과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따를 게 틀림없다. 법원의 유죄 판결은 그를 본보기 삼아 앞으로 '붙은' 대자보는 엄두도 내지 말라는 경고를 다른 청년들에게 하는 것이다.

외양은 50만원짜리 벌금형이지만 경·검찰, 법원이 합세해 표현의 자유와 권력자 비판에 재갈을 물린 사건이었다. 우리 사회가 이에 순응하면 독재나 전체주의에 조금씩 더 몸을 맡기는 것이 된다. 청년들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다'며 자기 문제로 인식하길 바랄 뿐이다.

코로나와 동거 시대



지난 2월 병원 내 코로나 환자 발생으로 호된 '코로나 신고식'(잠정 폐쇄)을 치른 서울 은평성모병원. 이후 모든 병원 방문자는 문전에서 주민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전자 등록기에 입력해야 한다. 일일이 체온 검사도 받는다. 하루 5000명이 거치는 일상이 됐다. 호흡기 질환 의심 환자 진료 구역은 입구부터 분리돼 있다. 모든 입원 환자와 간병인, 상주 보호자는 코로나 검사를 받는다. 요즘은 거의 모든 병원이 이런 식으로 변했다.

▶코로나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 감염자의 30%가 무증상이다. 이들이 걸린 줄도 모르고 돌아다니며 바이러스를 퍼뜨린다. 70%인 유증상자도 감염 초기에 바이러스를 대거 배출한다. 확진돼 격리돼도 그 전에 이미 많은 전

염을 일으킨다. 증상도 대개는 발열보다는 후각·미각 감소나 식욕 감퇴, 피로감 등이다. 체온 체크로 감염 의심자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얘기가 다. 마치 팬데믹(대유행)을 위해 디자인된 바이러스 같다. 코로나와 장기 동거하기는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신천지 코로나'가 몰아친 지난 2월과 3월 대구에서는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자가 15% 늘었다. 코로나 사망보다 2배 많은 200여 명이 초과 사망했다. 코로나 치르느라 정신없고, 일반 진료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 아닌 이유로 더 많이 죽는 역설이다.

▶국가 지정 음압 병실로 코로나 환자를 보는 일산의 명지병원은 진작에 이중 진

료 시스템을 도입했다. 코로나 음압 존(zone)을 독립 운영하면서, 심근경색증·뇌졸중 처치와 항암 치료, 투석 등 기존 필수 진료를 병행했다. 두 토끼 잡기 전략이다. 그랬더니, '코로나 병원' 낙인으로 외래 환자는 줄어도, 응급 심장 시술, 중증 외상 수술, 항암제 투여 건수 등은 예전대로 유지됐다. 병원과 코로나 동거 체제다.

▶우리나라 한 해 독감 사망자가 3000명 안팎이다. 코로나(280명)보다 10배 많다. 그럼에도 코로나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독감에는 예방 백신과 증상 초기에 감염력을 확 떨어뜨리는 타이플루가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백신을 대규모 접종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1년 후다. 요즘 병원 기피로 완치 가능한 초기 암 발견이 줄어든다고 한다. 마스크와 거리 두기 생활 방역을 백신 삼아야 한다. 힘들고 지치면 자체 휴식, 자가 격리 가능한 환경을 타미플루 삼아 지낼 수밖에 없다. 인류와 코로나의 동거 속에서도 삶을 지키고 만들어야 한다.

북한 비판하는 좌파도 있다

1980년대 학생운동권의 양대 산맥 NL(민족 해방)과 PD(민중 민주) 간 갈등은 지금의 좌우, 여야 갈등을 뻗쳤다. 과장을 좀 보태면 밥도 같이 먹지 않았다. 연인 사이일 지라도 어느 한쪽이 다른 사람에게 물들면 가차 없이 헤어졌다. 같은 운동권이지만 북한에 대한 견해 차이가 넘을 수 없는 간극이었다. PD그룹 학생들은 북한이 명색이 사회주의 국가라면서 권력 세습에다 우상화,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런 북한을 추종하는 NL 주사파를 용납할 수 없었다. PD 그룹은 주사파를 향해 이런 질문을 하곤 했다.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주사파가 되느냐?"

▶좌파의 원조 격 유럽 좌파가 북한 보는 눈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프랑스 사회당

은 전당대회에 북한 노동당을 초청하지 않는다. 그들은 북한이 좌파를 모욕한다고 생각한다. 좌파 신문 리베라 시용은 '공산주의 쥐라기 공원'이란 북한 르포 기사에서 "모든 공산주의 독재계결함의 집대성"이라 했다. "지구상 어떤 나라도 비열함과 범죄, 우매함에서 북한의 맞수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으로 유명한 영국 좌파 영화 대부 켄 로치 감독은 "북한은 끔찍한 기형 국가, 두려움에 떠는 상황이 아니라면 누구도 북한을 변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창당 100년이 다 돼가는 일본 공산당도 북한을 거의 혐오한다. 아웅산 테라, KAL기 폭파가 이어지자 '저건 공산주의가 아니다'라며 관계를 정리했다. 지금도 북핵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다. ▶세계 좌파 중

에 북한을 옹호하는 곳은 중국, 러시아, 쿠바 정도를 빼면 한국 NL계 주사파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NL 주사파가 한국의 운동권에 이어 정권까지 장악했다. 노동계와 시민 단체 진보 정당도 장악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북한 옹호'가 한국에서 판을 친다. ▶PD 계열에 뿌리를 둔 좌파 단체 사회진보연대가 그제 '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비상식적 처사는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북한 정권을 규탄했다. 국내 운동 단체들에 대해서도 "환상을 버리라"고 했다. 사회진보연대는 '핵 개발은 동기도 반민중적이고, 그 결과도 파멸적'이라며 "한반도 민중 전부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한국 진보 진영에서 나온 거의 유일한 북한 비판이다.



SL Dental Centre on 4th ST
(previous Killarney Dental Clinic owner)

한인 치과의사 산 리 Sean Lee

Tel: 403-228-5367 / Fax: 403-229-2876
website: www.sldentalcentre.ca
email: mission@sldentalcentre.ca

SL DENTAL CENTRE: 1000 Mission Professional Bldg
2303 4th Street SW, Calgary, Alberta T2S 2S7